

곡성군, 치매 진단 원격서비스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전문간호사 가정 방문 화상 연결 등
매일 셋째주 금요일 진단 접근성 ↑
이용률 2022년 93%→2023년 95%
진단부터 치료까지 의료 혜택 제고

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진단 원격서비스 시행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군은 전문간호사 가정 방문, 협력 의사와 화상 연결, 매일 셋째주 금요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혜택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19일 곡성군에 따르면 치매 진단 원격서비스는 센터의 전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된다. 간호사는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 원격 화상 통화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치매안심센터의 협력 의사와 환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의사는 화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질문을 하며, 간호사의 보조 하에

필요한 검사를 지시하고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센터 방문이 필수적이었던 의사 면담 과정을 개선한 것으로 교통 취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치매 진단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같은 서비스 도입의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023년에는 진단검사자 547명 중 61명이 자택에서 원격 진단 서비스를 받았으며 치매 관리 서비스 이용률도 2022년 말 93.9%에서 2023년 말 95.7%로 1.8% 상승했다.

원격서비스는 치매 검사의 전체 과정 중 일부를 차지한다. 전체 검사 과정은 먼저 인지선별검사로 인지저하자를 선별한 후, 1단계 진단검사인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한다. 2단계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와의 면담이 이뤄지는데, 이 단계에서 원격서비스가 활용된다. 필요시 최종적으로 협약병원인 곡성사랑병원에서 뇌영상촬영, 진단의학검사 등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와 원인을 확인한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가 화상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곡성군 제공

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매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감별검사 시 이용할 수 있는 '치

매기억택시' 무료 송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치매 진단부터 치료까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061-360-8983-8)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동물등록 자진신고 나주시,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반려견 신규등록은 시에는 지정된 동물병원 6개소(나주종합동물병원, 가람동물병원, 채움동물병원, 벤지동물병원, 동산동물병원, 전남동물의료센터)에서 등록 가능하며 등록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분실을 우려해 내장형을 권장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10일, 정보 변경시(죽은 경우 포함)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소유자 변경 신고는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고 규정을 위반해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나주시청 축산과(061-339-7693),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연락하면 된다.

나주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화순군, 30일 이내 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가 저수조 설치 시 30일 이내에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년 7월 16일)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2000㎡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되며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욱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화순군 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들이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 등 3곳

나주시가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의 온열질환 발생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산책로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생수 나눔 냉장고가 설치된 곳은 빛가람호수공원, 한수제 물레(테크)길,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세 곳으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1인 1병씩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으로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식히고 폭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수 전량을 무라벨로 공급해 비닐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냉장고 주변에 재활용 분리 수거대를 설치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친환경까지 고려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생수 나눔 냉장고 설치로 주민들이 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상거래용 계량기 저율 정기검사 화순군,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 저율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톤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 저울 및 판 저울, 전기식 저울 등 전통신장, 마트, 정육점 등에 사용되는 저울 전체가 대상이다.

검사 기간은 30일까지 3주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통신장 내 상인회 사무실에서 실시하며 자세한 검사 일정과 장소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061-379-3044)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나주시민들이 생수 나눔 냉장고를 이용하고 있다. 나주시는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산책로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했다.

나주시 제공

화순군, 폭염 대비 공공일자리 안전 점검 실시

작업환경, 업무강도 등 검토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당부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연일 습도 높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전 점검에 나섰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장 4개소를 방문해 작업환경, 업무강도 등을 점검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야외작업 자제,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 공간)에서 휴식 및 규칙적인 물 섭취 등을 당부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작업모자, 쿨도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배부하여 착용하게 했으며 온열질환 예방 가

이드와 온열질환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작업 중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물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폭염대책기간을 맞아 작업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나주배 원황, 올해 첫 미국 수출길 올랐다

조생종 110톤 규모

올해 첫 수확한 나주배 '원황'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3일 부덕동에 위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출선과장에서 나주배원에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원황 배 미국 수출 선적 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수출 물량은 수출 컨테이너 8대 분량의 약 110톤 규모다. 시는 올해 수출 목표량

을 6000톤으로 잡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나주배 수출 역사상 가장 많은 5256톤을 수출해 1543만달러(한화 약 218억원)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 중 대미 수출 실적은 2220톤 규모로 전체 약 42%를 차지한다.

이날 선적 행사엔 윤병태 시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진중문 농협무역 대표, 이동희 배원에농협조합장, 이재남 시의회의장과 도·시의원,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 편지형 농

협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 신경훈 농협 나주시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희 나주배원협 조합장은 "나주배 수출 촉진의 기폭제가 될 대미 선적식에 참석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내년 3월부터 국내 단독검역이 시행되면 수출 단지 난립, 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해보다 추석이 2주 정도 빨라 수출 일정이 앞당겨졌음에도 고품질 배 재배와 수확, 선과에 힘써주신 농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대미 검역 완화에 따른 문제점은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